

# 인도선협, LNG FOB조건 수입 정부에 건의

## 수입국 LNG 안정적인 확보위해 FOB 활용

인도선주협회(INSA : 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는 지난 25차 뭄바이 총회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FOB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인도선주협회장을 맡고 있는 Varun Shipping의 Yudhishtir Khatau는 일본, 중국, 스페인 등 주요 수입국들이 LNG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FOB 조건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해운기업 MISC는 향후 LNG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LNG 수송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인도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MISC는 최근 인도의 Varun Shipping 및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사 등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인데, MISC가 이처럼 인도 해운업체와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의해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인도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의 수입확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중동지역, 특히 이란 및 카타르 등으로부터 LNG 및 원유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물류체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MISC는 인도 에너지자원 수입확대계획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LNG선 운항선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에너지 수입 물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6,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급격히 증가

### 2005년초 95만TEU에서 2009년초 298만TEU로

6,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선박량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9월1일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선박량은 3,526척 787만TEU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에는 3,641척, 822만 TEU, 2007년 1월 1일에는 3,996척, 952만TEU, 2008년 1월 1일에는 4,410척, 1,089만TEU 그리고 2009년 1월 1일에는 4,683척, 1,205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6,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의 선박량은 급증할 전망이다. 2005년 1월 1일 6,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박량은 134척, 95만TEU에 그쳤지만 2006년 1월에는 172척, 126만TEU, 2007년 1월에는 246척, 187만TEU, 2008년 1월에는 318척, 244만TEU 그리고 2009년에는 386척 298만TEU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수년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집중적으로 발주됐으며 이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인도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9월 1일 현재 컨테이너선의 수주잔량은 1,229척, 449만TEU로 현존 선박량 대비 57.1%에 달하고 있다. 총 수주잔량 중 49%인 220만TEU(782척)이 용선을 통해 발주된 선박이다. 수주잔량 중 용선 비율이 49%인 것은 현존 선박량인 3,526척 787만TEU의 48%가 용선을 통해 운영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